

심의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

위원장

이 흥 훈 (변호사·전 대법관)

윤리위원

민 병 옥 (독자불만처리위원·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)

장 명 국 (내일신문 사장)

이 영 만 (헤럴드경제 사장)

이 진 녕 (동아일보 논설위원)

김 종 구 (한겨레 논설위원)

이 가 영 (중앙일보 정치부 차장)

김 규 식 (매일경제 금융부 차장)

안 양 옥 (한국장학재단 이사장·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)

김 영 모 (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·문화일보 광고국장)

변 재 운 (쿠키미디어 대표)

김 자 혜 (소비자시민모임 회장)

-
- 이 심의결정집은 언론계, 학계 등 관계분야의 연구자료로써 제공되는 것입니다. 그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 사건 관계인사 등의 명예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공의 주소나 가명 또는 기호로써 대신하시기 바랍니다.
 - 지면 사정으로 전체 내용을 다 실지 못했으므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(www.ikpec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